

해남군 농지투기 사전 차단 나섰다

읍면별 농지위원 148명 위촉 월 2회 회의...사전심사 강화 농업법인 실태조사 매년 실시

해남군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해남군은 최근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농지투기 사전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전 읍면에 총 14개의 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읍면별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총 148명을 위촉했다.

농지 취득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군은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 부실 운영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최근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01개 기

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신청한 234개 농업법인을 적발했다. 해남군은 9개소가 해당되며 군은 목적 외 사업으로 영위를 추구한 2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7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옛 농지법 58조 1호)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등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17명 수료

창업 희망자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영광군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창업학교) 수료식'을 갖고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사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고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혁신경제연대에 위탁, 지난 달 26일부터 5주간 총 8차에 걸쳐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례 공유,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수료식 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육성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의 맛 '빨낙지 한상' 드셔보세요

빨낙지거리 7개 음식점 10만원대 한상요리 개발

무안군이 무안 낙지의 맛을 알릴 요리를 개발했다. 무안군은 무안빨낙지거리 활성화를 위한 단품요리와 한상요리 등 무안의 맛을 알릴 요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역 맛도남도 음식점 7개 업소 대표는 전남도에서 지정한 음식거리인 무안빨낙지거리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자 TF팀을 구성했으며 낙지요리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10차례 모임을 가졌다. 그 결과 낙지단품요리로 수제간장소스를 이용한 낙지비빔밥, 낙지떡갈비, 낙지 묵밥, 낙지양파버섯덮밥을 개발했다. 10만원선에서 방문객들이 모든 낙지요리를 맛



10만원대 빨낙지 한상.

볼 수 있도록 낙지방탕이, 낙지초무침, 볶음, 연포탕을 세트 메뉴로 묶어 빨낙지 한상을 구성했다. 군은 앞으로 지역 22개 맛도 남도 음식점 중 최종 확정된 단품요리와 한상요리 판매를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요리 비법을 보급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빨낙지거리의 단품요리와 한상요리를 적극 홍보해 무안의 맛을 널리 알리겠다"며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아오시도록 음식점들의 맛, 친절, 위생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필리핀 리잘시와 근로자 도입 협약

하반기 100여명 농·어가에 배치

진도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근 필리핀 라구나주 리잘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은 경제산업국장 등을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후 필리핀 리잘시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베네즈 무노즈 리잘시장과 안토니노 아우렐리오 리잘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도입에 합의했다. 협약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근로조건 ▲이탈방지 대책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결혼이민자 분국 거주 전직 초청,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107명, 어업분야 259명 등 총 3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농·어가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100여명의 필리핀 계절 근로 인력을 지원받아 농·어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매혹의 보라 향기속으로 신안 퍼플섬서 9월 한 달간 '버들마편초 꽃축제' 열린다



버들마편초 꽃 활짝 핀 퍼플섬.

신안군이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퍼플섬에서 9월 한 달간 '매혹의 보라 향기속으로'라는 주제로 '버들마편초 꽃축제'를 개최한다. 버들마편초는 마편초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보라색 꽃이 핀다. 꽃피는 기간이 길어 퍼플섬에 안성맞춤인 식물로 해안 산책로를 따라 퍼플섬 곳곳에 심었다. 군은 최근 전국 최대규모의 1000만여 송이의 꽃이 피어나면서 매혹적인 보라색 꽃길을 찾는 관광객을 매료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퍼플섬에는 계절별 보라색 꽃이 피는 대규모의 꽃 단지가 조성됐다. 봄에는 라벤더꽃, 여름에는 버들마편초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으며 가을에는 아스타 국화꽃이 1만여평의 단지에서 '아-스타' 보라색 향연을 기다

리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퍼플섬을 찾는 관광객이 계절의 빼어난 해양경관과 풍부한 보라색의 향연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해상케이블카 장애인 차별 대책 촉구

전남 장애인단체, 성명 발표

목포 해상케이블카 장애인 할인요금 체계를 두고 논란<광주일보 2022년 8월 24일자 14면 보도>에 힘입어 가운데 전남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시작부터 유달산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반대여론이 많았으나 목포권 관광 활성화와 구도심 상권을 되살린다는 대의명분으로 개통해 신안군 등 인근 지역에 관광코스로 사랑

을 받고 있다"며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발전과 수많은 관광객은 목포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전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즐기는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차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시혜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목포시 장애인에게는 물론이고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목포시민보다 적은 2000원을 할인해 주는데 그치는 등 장애인 차별 논란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